

마지막 날까지 누리고 싶은 글쓰기의 괴로움

《너무도 쓸쓸한 당신》 펴낸 박완서씨

아치울 마을은 서울 쪽에서 간다면, 워커히호텔을 지나 두번째로 나오는 동리다. 강변을 따라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럴까 싶을 정도로 집들이 많이 들어섰다. 10여 년 전, 사학자 이이화 씨에게 한문 배우느라 드나들다가 풍광에 반해 그 이웃에 장만해 둔 집이다.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대부분 논이던 당시만 해도 고향 박적골이 아닐까 할 만큼 전형적인 시골마을이었다. 마을 들머리에서 보면 저 멀리 언덕으로 보이는 노란 집, 박완서씨의 정확한 표현을 빌리자면 '스패니쉬 옐로우'의 집이 바로 댁이다.

“골목이야 다 양회길이지만 아무래도 흙밭을 일이 많죠. 해가 떠 있는 동안 별다른 난방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주변이 환해요. 새로 집을 짓고 이사오자마자 채소 같은 것들을 키우는 일에 열른 욕심이 났지만, 여름에 심는 게 아니라고 해서 다가올 봄만 기다리고 있어요.”

표정만 봐도 박완서씨가 이 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 문을 열어두면 집앞으로 흘러가는 냇물 소리가 여간이 아니라는 등, 밤이면 보안등 불빛 때문에 절로 앞뜰이 흰하다는 등, 집 자랑이 계속된다. 서울서 학교 다니다가 방학 맞아 고향집 내려온 여학생 같다.

“늙은이의 삶이라고 다르게 볼 것 없어요”

이번 소설집 《너무도 쓸쓸한 당신》(창작과비평사)에 실린 소설 몇몇이 노년의 삶을 다룬다 해서 여러 지면에 노년이 강조돼 소개됐다. 그도 그럴 것이 차매에 걸려 집 나간 노인이 주택가의 절집에 기거하며 누리게 된 '살아온 무거운 잔재를 완전히 털어버린 그 가벼움'을 다룬 《환각의 나비》나 회갑 앞둔 과부가 고속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초로의 신사와 나누는 연애이야기 《마른 꽃》, 차매 걸린 노인이 가진 수의에 대한 집착이 아이러니

컬한 결말과 부딪혀 삶과 죽음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까지 나아간 <꽃잎 속의 가지> 등 노인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다. 하지만 작가가 서문에도 써놓았듯이 '수목된 단편들은 젊은이들 보기엔 무슨 맛으로 살까 싶은 늙은이들 얘기가 대부분'이긴 해도 딱히 노년의 삶을 알아줬으면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은 전혀 아니다.

“어렸을 때야 나도 환갑이 된다는 게 징그럽게 느껴졌어요. 굴욕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환갑도 지나고 보니 달라진 것은 없다는 생각이요. 체력이 좀 달리는 것밖에 노년이 된다고 해서 크게 바뀐 것은 없어요. 다만 내가 31년 생인데, 2세기에 걸쳐서 살아갈 게 틀림 없다는 사실이 좀 신기하죠. 이번 소설에 노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까닭은 내게 익숙하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자꾸 늙은이의 삶이네 하면 좀 호들갑스럽다고 생각해요. 딱히 노인 얘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친다면 《노인과 바다》는 노인만 봐야 한답니까?”

작가 말대로 그간 써오던 소설의 여러 특징들이 《너무도 쓸쓸한 당신》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그 특징은 '시종 솔직한 세태비판을 듣는다는 속시원함과 더불어 거들거들 그 이상의 어떤 충격'(백낙청)이거나 '세속에 따라 개성을 잃어 가는 순응주의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끈질긴 반항'(원운수), 혹은 심하게 말해 '자신의 생애와 관련된 무서운 집념의 이기주의'(홍정선)일 것이다. 그럼에도 《한 말씀만 하소서》 이후 5년 만에 나온 이 소설집은 '아무지고 매섭고 때로는 지나치게 앙칼진 사회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들려'(김영무) 주된 이전의 소설들과 약간 다르다. 《환각의 나비》의 결말처럼 노인의 환각을 두고 '아무리 지척이라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별개의 세계'라고 인정하는 식이다.

“전에는 세상을 보는 눈이 꽤 날카로웠죠. 정의와

새벽 4시에 깨어 글을 쓰다
맞은편 산자락의 밤나무 숲을
바라보노라면, 손바닥만한
겨울해는 왼쪽에서 떠오른다.
가을이 지나면서 해 뜨는 자리가
서울 쪽으로 점점 내려가더니
지금은 다시 구리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 최근 일곱번째 소설집
《너무도 쓸쓸한 당신》창작과비평사를
펴낸 박완서씨(68)는 요즘 그렇게
해가 다니는 길을 보며
아치울 마을에서의 첫 겨울을
나고 있다.

불의로 단칼에 나뉘볼 수 있었다고나 할까? 하지만 지금은 잘 안돼요. 세상에 대한 배려랄까, 아무튼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변한 것이겠죠. 정의와 불의, 이 두 가지 기준에서 조금 비켜서 있습니다.”

아직도 어렵고 두려운 소설 쓰기

1970년 《나목》이 《여성동아》 여류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되며 등단한 뒤, 줄잡아 30권이 넘는 책을 내놓았으니 해마다 한 권 분량 이상을 써온 셈이다. 다작이라면 다작이라 할 수 있지만, “장수의 비결은 낭만적 탈출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 야멸차기까지 한 그녀의 지독한 산문정신에 있다”(최원식)는 말처럼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도 소설 쓰는 일이 고통스럽다.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 다행이죠. 다른 일을 30년 가까이 했다면, 아마 숙련자가 됐겠죠. 하지만 글 쓰는 일은 숙련될 수 없잖아요. 늘 어렵고 두렵죠. 그렇기 때문에 또 글을 쓰는 것이기도 하죠. 워낙 어려운 게 소설 쓰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쓴 소설

은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박완서씨는 여전히 책 읽는 일과 글 쓰는 일이 재미있다. 그래서 이번 소설집 서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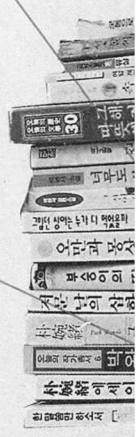
박완서가 말하는 박완서 소설

《너무도 쓸쓸한 당신》

“자기 소설을 아무리 단편이라고 해도 내리읽고 나면 언더리가 난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즐기면서 읽었다. 남의 글을 읽을 때처럼 간간히 미소짓는 여유도 부리느라 별로 지루한 줄 몰랐다. 나는 그게 스스로 대견했다.”(1998)

《나목》

“특히 이 작품에 대한 나의 애착은 편애에 가깝다. 《나목》(1970)을 생각할 때마다 괜히 애뜻해지곤 한다. 가끔 여지껏 쓴 작품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는 나는 질문을 받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망설이지 않고 《나목》이라고 대답해 온 것도 그런 무조건적인 애착이었을 것이다.”(1970)



서점의 복합화를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서점의 고객을 타업종에 빼앗기지 말고
고객을 창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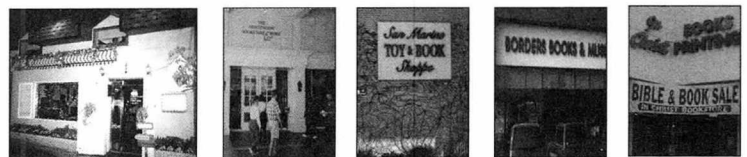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한 평에 2천 오백만 원하는 땅에 서점을 만든다면 과연 서점이 제대로 경영될 수 있겠습니까? 출판인들의 손익 개념으로는 절대로 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신촌에 바로 그러한 서점이 생겼습니다.

1999년 1월 31일에 신촌에서 젊은이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꼽혀지고 있는 민들레영토에 10평짜리 예쁜 미니 서점이 생겼습니다. 커피값 대신 문화비를 받는 문화공간 민들레영토(대표 지승룡)는 젊은이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고객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촌에만 커피숍과 카페가 약 5천여 개에 달하는 반면 서점의 수는 10여 개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생각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미 대학로의 민들레영토에는 1998년 12월 31일에 서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서점은 복합문화공간의 컨셉에 맞는 테마서점을 만들고자 하는 예영커뮤니케이션의 '도모 초이스북스' 가맹점의 한 형태입니다. 예영커뮤니케이션은 출판의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빠른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들레영토의 예는 북카페 형태의 새로운 문화운동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은 학교마다, 교회마다 개발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의 서점 체인들은 서점과 선물용품점, 서점과 커피숍, 어린이책과 장난감점 등 다양한 형태의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점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취급하는 장르를 전문화하고, 그와 관련된 전문 상품점을 겸하는 것입니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서점들은 끊임없는 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서점의 형태를 복합화하는 것은 서점을 대형화하는 것보다 투자부담도 적고, 수익성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출판사들 역시 자신의 전문영역을 택하여 전문화하는 것이 생존전략일 것입니다.

▶책이 있는 문화 공간 신촌 민들레영토와 다양한 형태의 미국 복합 서점



제4회 예영문화강좌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차고 넘치게 하라

강의 :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오형국 목사, 남서울교회)
중소교회 청년대학부도 부흥할 수 있다 (김춘기 목사, 전주 안다목교회)
제자로 양육하는 것만이 진정한 힘이다 (박준호 목사, 사랑의교회)
일시: 1999년 2월 22일 (월) 오후 3시~8시
장소: 여전도회관 2층 루이스 기념관
주최: 예영커뮤니케이션
후원: 기독교신문사, 한국기독교교육학술동역회, 도서출판 CUP, 월간 복음과 상황
참가회비: 2만원
입금구좌: 국민은행 068-21-0416-622(예금주 김승태)
참가문의: 851-2247-8

예영커뮤니케이션 · CUP 152-069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19-1
출판부 T. 851-2247 출판유통사업부 T. 830-8566 F. 830-8567 도모사업부 T. 851-2248
CUP는 예영커뮤니케이션에서 위탁 경영하는 출판사입니다



시인 고은씨가 만월대에서 주문 깨진 기와.

이런 말을 썼다. "적당한 육체노동, 맛있는 식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미운 사람 욕하기, 그리고 편한 자세로 좋은 책 읽기는 내가 사는 것을 맛있어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낙들이다."

앞으로 새로운 연재소설에 매진하고 《그 산이 아직도 거기 있을까》의 후속작을 펴낼 생각이다. 그 후에는 단편과 동화를 계속 쓸 생각이다. '힘이 닿는 한, 쓰는 게 일'이라고 덧붙인다.

김점선·황주리 씨 등의 그림이 걸린 나무 계단을 밟고 널찍한 3층 다락으로 올라가면 부감으로 산의 높이를 표시한 개성 지도가 걸려 있다. 박완서씨는 박적골이 어디며 얼마나 가까운지 손으로 짚어 가리킨다. 재작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갔지만, 정작 작가는 그까지 것, 고향 보는 것도 아니고 금강산 구경 가면 뭐하냐고 되묻는다. 덕분에 먼저 개성 땅 밟아본 고은씨가 만월대에서 주문 기와라며 깨진 기와 2장을 선물해 스피커 위에 얹어줬다.

"만월대 올라갔다 거기 어디가 내 고향이라는 생각에 주위왔대요. MBC에서 《미망》을 드라마로 제작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한참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있었으니 개성에 가서 촬영하면 어떨까. 어렸을 때 지냈던 곳이지만, 아직까지 개성

의 그 산세는 여전히 기억나거든요."

대신에 씩씩한 외손자들이랑 아차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그 기억을 달랜다. 아차산성 너머까지 올라가면 바위가 웅장해 박완서씨가 아차산의 금강산이라 부르는 면목동 쪽이 나온다. 그곳에서 천호동 쪽으로 내려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꽤 여러번 되풀이했다. 흙 밟고 다니는 일이 좋아서다.

힘이 닿는 한 쓰는 게 일

《너무도 쓸쓸한 당신》이 나오기 전까지 박완서씨 이름은 참여연대 창립회원, 유니세프 친선대사, 각계원로 5·18 의견서, 노동법 변칙처리 규탄 시국선언, 북한동포돕기 시 낭송회, 동강댐 반대 서명 등에서 찾을 수 있었다.

"아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기에, 더구나 이름만 올려놓는다고 하기에 싫다고 말할 수 없어서 그런 거죠. 학교 다닐 때, 반장도 못해 봤습니다. 뭐가 주동이 될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박완서씨는 정색하고 손을 내젓는다. 하지만 그것마저 쉬운 일인가? 몇 년전, 일간지 기자 200명은 박완서씨를 멋있는 여성 10명 중 하나로 뽑은 적이 있다. 그것 참 맞는 말이다. — 김연수 기자

<엄마의 말뚝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던 것은 쓰고 나서 곧 잡지 못하고 쓴 것을 후회한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참았어야 하는 것을, 정 못참겠으면 울 안에서 통곡, 통곡으로 끝냈어야 하는 것을..."(1981)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뺨속에 진까지 다 빼 주다시피 힘들게 쓴 데 대해서는 아쉬운 것 투성이지만 40년대에서 50년대로 들어 서기까지의 사회상, 풍속, 인성 등은 이미 자료로서 정형화된 것보다 자상하고 진실된 인간적인 증언을 하고자 내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다"

<미망>

"고향 개성에 대한 헌사처럼 마음먹고 쓴 소설이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남편의 투병 생활 때문에 병원에서 쓰기도 했고 아들도 있었다. 애착도 있고 그만큼 싫기도 한 소설이다."(1990)

